

올리비에 가베/ 파리 국립장식 미술관 관장

오늘날 한국이 중요해지고 있다. 모더니티의 역사는 오리엔탈리즘, 자포니즘, 아프리카주의, 프리미티비즘(원시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즘'의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오늘날 기술되고 있다. 또한 '모더니티(현대성)'의 역사에서 한국의 기여가 현저히 두드러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 본래, 자포니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즘은 특정 취향을 반영하거나 프랑스 이외의 타문화를 바라보는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선택적 장소로써 한국과 한국 예술가들, 창작자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이는 곧 '한국성(코리아니즘/Koreanism)', 한국주의의 대두라 할 수 있다. 한국성은 깊이 있는 성찰을 요하는 새로운 운동이자, 정의가 필요한 국제적 현상이다.

근 40년 동안, 최병훈의 작업은 '코리아니즘'의 활력과 독창성을 표출해왔으며, 그는 조상대대로 전해지던 한국의 전통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아름다움을 승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의 작품은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상호관계성을 특징으로 하며, 형태와 물질은 서로 신비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이 속에서 형식은 새로운 구조를 모색한다. 그는 나무와 돌을 중력의 법칙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무중력성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들은 조금 더 자유롭고 더욱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우미의 법칙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최병훈의 작품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일부 예술가들의 이름을 거론해 볼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창조적 예술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가가 본래 어떤 인물인지를, 예술가 혼자 별개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예술가와 특정 작품을 중심으로 감상하게 하여 다른 예술가와의 연관성이나 계보로 기록하지 않게 한다. 오로지 최병훈 작품의 특이성에 집중해보면, 그 본질은 우리가 가진 모더니티의 보편적 역사로 정확한 관계성을 설정해주며, 그 역사는 시대와 지리와는 가장 동떨어진, 어떤 연계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기에는 19세기 중반 이후로 새로운 영감의 대상이 된 아주 광활한 아시아가 있다. 아시아의 예술은 장르간 우열이 없는 새로운 상황을 서구에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회화—서구에서는 항상 고결한 예술로 여겨지던 회화—가 더 이상 도자, 옷칠, 나전(螺鈿), 종이 작업, 서예, 가구보다 더 본질적인 매체가 아니라는 인식에 대한 열쇠를 제공했던 것이다. 최병훈의 작업은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고 광범위한 영역과 범주를 아우르기 때문에,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그의 예술은 장르의 위계성이나 주변성에 머무르지 않기에 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비옥한 토양 속에 위치한다. 다시 말하면 최병훈은 어떤 매체에 선호도를 취하거나 우선권을 두지 않는, 예술적 경계 부재의 창조성을 전면(全面)에 내세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동시대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길이 열리기 전까지 수천 년, 혹은 적어도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최병훈의 작품들은 이러한 예술의 경계가 부재하는 '개방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거듭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 이상동안 최병훈의 작업들은 희귀한 시의 형식적 레퍼토리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칸딘스키 이후 위대한 예술가들이 항상 염원해 왔던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것은 리얼하면서도 진실에 가득한 생동감을 드러낸다. 또한 최병훈의 예술은 여러 형태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열려있는 관계성을 허용한다. 서로 상반되고 상호보완적인 형태는 재료의 물성과 만나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은유적인 시처럼 표현하자면, 여기서 둘은 공중에 부유하는 '작품의 부호'가 되며, 금속은 예상 밖의 뜻하지 않은 그래픽적인 유연성을 가진 심표가 된다고 할까. 그리고 나무와 흑단(黑檀)은 유기적인 건축 구조체로 존재한다. 집을 에워싸고 있는 공간 속에서나, 또는 오르락내리락하는 풍경 속에 놓인 최병훈의 작품들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보노라면 스스로 놀라울 따름이다. 한마디로

최병훈의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세련된 자세를 취한 채 오랫동안 숙고하고 상상하는 공간을 허락한다. 한 번도 균형감이 깨지는 적이 없이 안정감을 선사한다. 그의 작품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절제되어 있다. 즉, 줄무늬로 부드러운 효과를 전달하는 대리석 표면, 벨벳같이 부드럽고 딱딱한 촉감을 전달하는 화강암의 표면, 그리고 감각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흑단의 곡선은 우연스럽게 선택된 것이 아니다. 각각의 작품은 성스럽고 현세적인 이중성을, 영원과 찰나의 시간성을 반영하며 재료 자체가 가진 물성 고유의 특징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병훈 작가가 연작으로 제작한 <태초의 바람(vents au début du monde/Winds at the Beginning of the World)>은 처음 전시를 통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표현된 시각적 생동감은 한번 본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남아 '여운을 남기는 이미지'로 기억된다. 그것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는 이미지이다.

최병훈은 최근 파리국립장식미술관에서 기획한 《코리아 나우(Korea Now)!: 지금, 한국!》(2015년 9월 18일-2016년 1월 3일)에도 참여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우리 미술관은 최병훈 작가와 함께 이러한 대규모 그룹전을 기획한 이후, 이제 최병훈의 작품에 최고의 찬사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 컬렉션의 역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미술관의 중앙 전시공간에 들어가자마자 최병훈의 두 작품이 관람자들을 맞이했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최병훈이 2008년에 제작한 <Afterimage>의 연작에 속하는 테이블 한 점과 체어 한 점이었다. 전시를 오픈한 이후, 최병훈 작가와 파리 '다운타운(Downtown)'의 갤러리스트인 프랑수아 라파누어(François Laffanour)는 전시 작품 중 한 점을 미술관이 소장할 것을 제안했고, 그 작품은 몇 주 후면 파리국립장식미술관의 영구 컬렉션의 새 작품으로 들어올 것이다. 파리국립장식미술관은 무려 150년 전에 예술가들의 창조력을 고무시키고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최병훈의 신작이 미술관에 들어오는 것은 진심으로 특별한 순간이자 우리에게 그 자체로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병훈의 작품은 과거와 현재, 시대, 예술운동, 창조적 커리어의 구체적인 특징을 입증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병훈의 예술작품이 컬렉션에 전시되면 관람자들에게 '다원적 한국성'을 일깨워 주리라 믿는다. 그의 작품은 관람자들을 사유할 수 있게 하며, 시대를 이어온 한국작가의 열정을 상상하게 한다. 최병훈은 우리를 꿈의 세계로 인도하며 유구하게 이어져온 '코리아니즘'에 대한 신념을 다시 발견하게 한다.